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6. 15. ~ 6. 21.

전남농업정보

38
VOL

주간 기상전망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당근 오이 재배 동향 및 양념채소 과채 가격 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매실 수급 동향 및 당면
영농 추진 상황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보성군, 농번기철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
탄력 운영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농식품부-CJ 중국본사 농식품 수출 MOU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토마토 요리 레시피 10종 개발

정책동향

이 지사, “축산업, 사료비 절감·약취 해결 노력”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며 강수량은 평년(5~19mm)과 비슷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증가
- 백다다기오이 6월 강원지역 정식면적 크게 확대
- 취청오이 6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1% 감소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양념채소 : 양파, 대파

- 양 파 : 양파 6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722원/kg)보다 높은 750~850원/kg 전망
- 대 파 : 대파 6월 도매가격은 봄대파 출하량 감소로 평년(1,273원/kg)보다 크게 높은 2,400~2,600원/kg 전망

▶ 과 채 : 수박, 참외

- 수 박 : 수박 6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상품 1kg에 1,200~1,500원 전망
- 참 외 : 6월 참외 가격은 수정 불량으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29~51% 높을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양파·마늘·매실 수급 동향 및 당면영농 추진 상황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9,171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940원/kg(전년 487원 대비 93%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인 5,425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620원/kg(전년 2,760원 대비 31% ↑)
- 매 실 : 재배면적은 전국의 69%인 3,937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24,277원/10kg(전년 21,219원 대비 126% ↑)

▶ 당면영농 추진상황

- 모내기 실적 : 142천ha(계획 168천ha, 대비 85%)
- 맥류 수확 : 맥류 11,340ha(계획 16,250ha, 70%)
- 매실 수확 : 984ha(계획 3,937ha, 대비 25%) / 6월초부터 본격 출하
- 배 봉지 씌우기 : 1,383ha(재배면적 3,457ha 대비 40%)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전라닷컴, 남도일보)

- ▶ 보성군, 농번기철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 탄력 운영
- ▶ 해남군, 우리밀 재배 전남 44%, 전국 18%
- ▶ 신안 하의도 '친환경 블루베리' 본격 출하
- ▶ 진도 울금, 건강식품 개발 본격 추진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한국농어민신문)

- ▶ 농식품부-CJ 중국본사 농식품 수출 MOU
- ▶ 농식품 수출 4개월 연속 부진 속 '인삼 기지개'

- ▶ 단기수출보험 제 역할 못해...농가가 농산물 손실책임 부담
- ▶ aT, 베트남 하노이지사 개소...농식품 수출 활성화·소비 촉진 역할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토마토 요리 레시피 10종 개발
- ▶ 벼 키다리병, 해법 찾았다!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미니채소 육성 연구 추진
- ▶ 시설하우스 머위재배 고온기 대비 철저
- ▶ 때 이른 무더위, 가축 관리 유의해야

✿ 정책동향(전라남도, 한국농어민신문)

- ▶ 이 지사, “축산업, 사료비 절감·악취 해결 노력을”
- ▶ 구제역, 여름철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 ▶ 벼 농작물재해보험 26일까지 가입하세요
- ▶ “지방농정 민간주체 역량 키워 교섭력 제고를”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아르헨티나의 대두수확 가속화로 세계대두가격 하방압력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겨울 밀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인해 2주래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옥수수 공급량으로 인해 지난 3월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
 - 대두 선물가격은 약보합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농작물도 생명체라는 마음으로 농사 지어야 성공”
- ▶ 전남 해남군, 年소득 1억 富農 5년새 6배 꺾충 ‘대한민국 농업1번지’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판매기간 : (당초) 4. 20. ~ 6. 5. → (변경) 4. 20. ~ 6. 26.
- * 옥수수 5. 4~6.12, 콩 6.1~7.17, 시설작물 2.23~12.31 등
- 보험상품 :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손해,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 등 4종) 손해까지 보장
- 가입방법 :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 보험료는 올해부터 카드 분할 납부 가능
 -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정부 50%, 지방비 30%, 자담 20%)
 - * 1ha 당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단가 : 473천원(보조 378, 자담 95)

▶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6. 15. ~ 6. 26.(2주간)
- 금회신청 : 150억원(보조 1, 이차보전 149)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 축산업등록·허가된 가축 사육농가
- 지원기준
 - 보조지원(준업농~전업농 규모)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이차보전(기업농규모) : 융자 80%,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신축 및 개보수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6. 1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15)	전주 (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40,68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7,000	142,000	195,360	↓ 2.1	↓ 28.8
	고구마(밤)	10kg	30,200	29,800	31,200	27,850	32,523	↑ 8.4	↓ 7.1
	감자(수미)	20kg	32,000	36,800	53,560	20,900	24,177	↑ 53.1	↑ 32.4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760	740	850	335	434	↑ 126.9	↑ 75.1
	양배추	10kg	11,000	11,400	7,900	4,125	5,315	↑ 166.7	↑ 107.0
	오이(다다기계통)	15kg	24,333	22,000	25,333	28,250	24,292	↓ 13.9	↑ 0.2
	애호박	8kg	10,400	9,800	10,960	15,700	13,313	↓ 33.8	↓ 21.9
	토마토	10kg	17,000	18,000	22,800	15,850	17,327	↑ 7.3	↓ 1.9
	무(월동)	1kg	-	700	498	-	-	-	-
	당근	20kg	29,600	29,600	24,320	32,800	32,900	↓ 9.8	↓ 10.0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60,000	780,667	↑ 24.2	↑ 5.0
	풋고추	10kg	41,200	38,200	47,400	36,450	35,203	↑ 13.0	↑ 17.0
	마늘(난지)	10kg	38,000	36,200	35,400	26,800	34,100	↑ 41.8	↑ 11.4
	양파	1kg	820	760	742	513	680	↑ 59.8	↑ 20.6
	대파	1kg	2,480	2,560	1,840	1,195	1,547	↑ 107.5	↑ 60.3
	파프리카	5kg	15,400	20,600	17,600	20,000	21,590	↓ 23.0	↓ 28.7
	방울토마토	5kg	14,600	15,000	17,200	11,850	13,047	↑ 23.2	↑ 11.9
	수박	1개	12,800	14,000	16,760	11,750	13,853	↑ 8.9	↓ 7.6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7,800	67,800	65,800	92,000	81,783	↓ 26.3	↓ 17.1
	배(신고)	15kg	39,600	41,200	40,600	58,650	54,398	↓ 32.5	↓ 27.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6/15)	전주 (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4,000	560,000	↓ 0.4	↓ 5.0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4,000	358,867	↓ 5.4	↑ 17.0
	새송이버섯	2kg	8,400	8,400	8,400	8,250	7,965	↑ 1.8	↑ 5.5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592	6,486	6,489	6,528	6,148	↑ 1.0	↑ 7.2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48	2,172	2,127	2,173	1,985	↑ 8.1	↑ 18.3
	닭고기	1kg	5,178	5,050	5,366	6,153	5,481	↓ 15.8	↓ 5.5
	계란(특란)	10개	1,939	1,945	1,992	1,918	1,831	↑ 1.1	↑ 5.9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1	2,299	↑ 0.3	↑ 10.8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6. 15.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03 천원	4,740 천원	4,106 천원	↓ 0.8	↑ 14.5
	거세	6,036 "	5,991 "	5,565 "	↑ 0.8	↑ 8.5
송아지 (6~7월)	암	2,455 "	2,388 "	1,720 "	↑ 2.8	↑ 42.7
	수	2,964 "	2,953 "	2,644 "	↑ 0.4	↑ 12.1
육우(600kg)		3,365 "	3,270 "	2,692 "	↑ 2.9	↑ 25.0
젖소수송아지(7일령)		198 "	178 "	16 "	↑ 11.2	↑ 1137.5
돼지(110kg)		476 "	489 "	489 "	↓ 2.7	↓ 2.7
육계(원/kg)		1,311 원	1,317 원	1,540 원	↓ 0.5	↑ 14.9
계란(원/특란10개)		1,293 원	1,350 원	1,402 원	↓ 4.2	↓ 7.8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833 원	-	↓ 39.1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날 씨 (강수량 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2.6	21.9	0.6	26.0	26.0	0.0	19.1	18.9	-0.3	
6. 18.(목)	23.5	21.8	1.7	28	26.3	1.7	19	18.5	-0.5	맑음
6. 19.(금)	23	22	1	26	26.3	-0.3	20	18.7	-1.3	맑음
6. 20.(토)	22.5	22	0.5	26	26.1	-0.1	19	18.9	-0.1	맑음
6. 21.(일)	22	22	0	25	26	-1	19	19	0	맑음
6. 22.(월)	22	21.9	0.1	25	25.9	-0.9	19	19.1	-0.1	맑음
6. 23.(화)	22.5	21.9	0.6	26	25.7	0.3	19	19.2	-0.2	맑음
6. 24.(수)	22.5	21.9	0.6	26	25.6	0.4	19	19.2	-0.2	맑음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당근·오이 재배 동향

□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증가

-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42% 증가하고 평년보다는 23% 감소한 117ha로 전망된다.
- 이는 작년 첫 출하기 가격이 높아 당근을 파종한 농가가 많고, 무 재배농가가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근으로 작목을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 백다다기오이 6월 정식면적 크게 확대

- 6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상주에서는 작년 바이러스 피해로 정식의향이 감소하였으나, 강원 홍천에서는 양배추 가격 하락으로 면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충남 천안, 대전광역시에서도 백다다기오이 선호 추세로 정식면적이 증가할 전망이다.

□ 취청오이 6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1% 감소

- 6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진천의 정식면적 변화는 크지 않겠으나, 강원 횡성에서 더덕으로 일부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양파, 대파

○ (양 파)

- 양파 6월 도매가격은 2015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722원/kg)보다 높은 750~850원/kg 전망

○ (대 파)

- 대파 6월 도매가격은 봄대파 출하량 감소로 평년(1,273원/kg)보다 크게 높은 2,400~2,600원/kg 전망

과 채 : 수박, 참외

○ (수 박)

- 수박 6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상품 1kg에 1,200~1,500원 전망

○ (참 외)

- 6월 참외 가격은 수정 불량으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29~51% 높을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매실 수급 동향 및 당면영농 추진 상황

○ (양 파)

- 재배면적 : 9,171ha(전년 대비 24.1% 감, 평년 대비 19.3% 감) - 전국의 51%
- 숙기별 : 조생종 1,493(16%), 중만생종 7,678(84%)
- 밭떼기 거래(중만생종)
 - 거래가격 / 거래실적 : 8~12천원/3.3m²(전년 5~6천원/3.3m²) / 30% 성사
- 출하동향 : 5,500ha(전체 면적 9,171ha의 60%)
 - 수확 완료시기 : 조생·중만생종(완료), 만생종(6. 20)
- 도매시장 가격(15.6.9.현재, 상품기준)
 - 양파 : 940원/kg(전년 487원 대비 93% ↑, 평년 781원 대비 20% ↑)

○ (마 늘)

- 재배면적 : 5,425ha(전년 대비 26.4% 감, 평년 대비 32.8% 감) - 전국의 26%
- 품종별 : 남도 4,232(78%), 대서 1,031(19%), 기타 162(3%)
- 밭떼기 거래 : 11~12천 원 / 3.3m²(전년 7~8천 원 / 3.3m²)
 - 거래실적 : 65~70% 성사
- 출하동향 : 4,077ha(전체 면적 5,425ha의 75%)
- 도매시장 가격(15.6.9.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620원/kg(전년 2,760원 대비 31% ↑)

○ (매 실)

- 재배면적 : 3,937ha(전년 3,844ha 대비 2.4% 증) - 전국의 69%
- 시군별 : 광양 1,342, 순천 1,302, 곡성 606, 구례 215, 기타 472
- 출하동향 : 984ha(전체 면적 3,937ha의 25%)
- 도매시장 가격(15.6.9.현재, 상품기준)
 - 매실 : 24,277원/10kg(전년 21,219원 대비 12.6% ↑, 평년 32,834원 대비 35.3% ↓)

○ (당면영농 추진상황)

- 모내기 실적 : 142천ha(계획 168천ha, 대비 85%)
- 맥류 수확 : 맥류 11,340ha(계획 16,250ha, 70%)
- 매실 수확 : 984ha(계획 3,937ha, 대비 25%) / 6월초부터 본격 출하
- 배 봉지 씌우기 : 1,383ha(재배면적 3,457ha 대비 40%)

* 출처 : 전라남도

5. 전남 시·군 농정동향

■ 보성군, 농번기철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 탄력 운영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농번기철을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주)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주말에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원활한 농작업과 적기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 비상근무를 실시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오는 6월 21일까지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기계임대사업은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비용과 경영비 절감, 농기계 이용률 증대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 보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총 3개소(보성읍, 복내면, 조성면)에 73종 47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농기계 20종 300여대 구입과 기존 임대사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보성읍 850-5772, 복내면 852-7167, 조성면 858-2917)를 통해 필요한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닷컴

■ 해남군, 우리밀 재배 전남 44%, 전국 18%

- 해남군(박철환 군수)이 우리밀 재배 확대에 나선 것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 6월 중순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는 2015년산 우리밀은 모두 1,331ha로, 2013년 760ha보다 75%가 늘고 2014년 1,091ha보다는 22%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재배면적은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전국에서는 18%에 해당되는 수치다.
- 이처럼 우리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보리수매제도 폐지(2012년 정부 보리수매 폐지)에 대비해 대체작목으로 꾸준히 계약재배를 추진해 온 것과 각종 자재 지원사업, 농협 수매수수료 지원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해남 우리밀은 100% 계약재배로 판로걱정이 없으며, 2모작을 실시하는 밭에 대한 직불금도 1ha당 99,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 호응이 높다.
- 군이 지속적으로 농자재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도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꼽는다. 올해도 3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우리밀 수매 수수료와 함께 농자재를 지원한다.
- 300여 농가 670ha에 지원되는 자가수분 증진제의 경우, 이모작 지대에서 밀 재배시 수확시기가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후기작물의 적기영농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자가수분증진제를 사용하면 수확시기를 보통 1주일 정도 앞당길 수 있게 되며 수정율 또한 증가해 생산량이 증대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이와 함께 군은 6월말~7월경 밀 수매를 앞두고 사업비 5천4백만 원을 들여 톤백 6,000포를 6월 초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농한기 소득원 확보를 위해 향후 2,000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우리밀 재배에 대한 교육과 자재지원 등으로 고품질 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해 1,091ha에서 생산된 밀은 3,820여 톤으로, 629농가가 농한기 4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 출처 : 전라닷컴

■ 신안 하의도 '친환경 블루베리' 본격 출하

- 군 특화작목 집중 재배...5.4ha서 200t 생산 전망 -
- "눈 피로회복·성인병 예방·항암효과 등 웰빙식품" -
- 전남 신안군 특화작목인 블루베리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 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군 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하의도에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단지를 집중 재배하고 있다.
- 현재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5.4ha에 23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조생종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출하하게 된다.
- 군은 올해 20여t 이상의 블루베리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현재 판매가격이 kg당 상품 3만원, 중품이 2만5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6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회복과 시력향상, 노화방지 및 치매, 각종 성인병예방, 이뇨작용과 피부미용, 대장암 및 변비예방, 항산화 기능과 항암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고소득 웰빙 식품이다.
- 신안블루베리(주) 박홍인 대표는 "내재해형하우스 시설재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재배면적 확대와 품질을 고급화 하고, 블루베리즙이나 엑기스 등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신안군은 블루베리 품질향상과 조기 출하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 남도일보

진도 울금, 건강식품 개발 본격 추진

- 郡, CJ 제일제당-이마트와 상품화 업무협약 체결 -

- 전남 진도군이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진도 울금을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 7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서울 이마트 본사에서 CJ 제일제당, 이마트와 진도울금 상품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진도 울금 판매 촉진 행사 진행과 신세계 그룹 유통망을 이용한 제품 판매 등 판로 확대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 CJ 제일제당은 진도 울금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함께 CJ그룹 인프라를 이용한 진도 울금 제품 판매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1차로 울금 음료와 울금 진액 등 소비자에게 진도 울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군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울금을 확보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울금을 생산·공급한다.
- 울금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간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울금은 커큐민 이외에도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이 내린 식재료', '밭에서 나는 황금' 등으로 불린다.
- 전국 대표 울금 주산지인 진도에서는 지난해 1천100t의 울금이 생산됐다. 현재 재배면적은 189ha이며 올 예정 생산량은 3천t이다.
- 진도군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진도 울금 명품화 사업을 추진했다.
- 이동진 진도군수는 "CJ 제일제당과 이마트와의 진도울금 상품화를 위한 상생협력은 농업계에 대한민국 최고 유통·마케팅 전문 대기업이 참여해 지역 특산물 발굴과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남도일보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농식품부-CJ 중국본사 농식품 수출 MOU

- 농림축산식품부가 CJ중국본사와 우리 농식품의 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CJ중국본사에서 진행된 ‘농식품부-CJ중국본사 간 MOU 체결식’에는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박근태 CJ중국본사 대표, 이필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중국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와 CJ중국본사는 CJ의 TV 홈쇼핑 및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그동안 중국 CJ홈쇼핑에서 판매된 우리 농식품은 참치캔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됐으나, 농식품부와 CJ중국본사는 이번 MOU를 계기로 중국 홈쇼핑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농식품을 적극 발굴해 수출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MOU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CJ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농식품 수출 4개월 연속 부진 속 '인삼 기지개'

- 5월 실적 4억8040만 달러 -
- 전년동기 대비 8.1% 감소 -
- 인삼 1560만 달러...24.6% 증가 -

- 올 5월까지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인삼이 모처럼 만에 수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5월 농식품 수출 누계는 전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24억764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당월 수출은 4억804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 줄면서, 올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 특히 신선식품은 전년 동기보다 17.6% 줄어든 3억8160만 달러(누계)를 기록했다. 물량도 22.3% 감소한 13만여 톤. 품목별로는 채소류·김치류·버섯류 등 대다수 주력 품목들이 장기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속적인 엔저에 따른 수출채산성 하락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인삼 수출이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삼은 당월 기준 156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1250만 달러)보다 24.6% 증가했다. 그동안 인삼은 주요 수출시장인 중화권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 하락세를 보였다.
-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우리의 어버이날과 유사한 어머니날(5월 둘째 주 일요일) 등 선물용 소비가 크게 늘고, 주요 수출지역에서 TV 광고·온라인 SNS를 비롯한 수출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해외 수요가 확대됐다. 5월까지의 인삼 수출 누계는 전년 동기보다 0.6% 늘어난 6940만8000 달러.
- 이 외에 조제분유(누계 4365만5000 달러·59.2% ↑)와 다육식물(누계 110만6000 달러·67% ↑)이 중국에서, 들기름(누계 586만3000 달러·4015% ↑)이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 강혜영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올 하반기에는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를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중소기업체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단기수출보험 제 역할 못해...농가가 농산물 손실책임 부담

- 신선농산물 수출과정서 신선도 저하 등 손실 발생 불구 -
 - 수출업체, 보험 통한 보상보다 생산농가에 책임 떠넘겨 -
- 수출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A' 씨는 출하 대금 정산 받은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다. 출하한 물량에 대한 대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 수출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겨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수출업체가 밝히는 이유다. 그러나 선적까지는 이상이 없었던 만큼 운송·통관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수출업체가 책임을 지고 농가에 대금을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는 게 'A' 씨의 생각이다.
- 이같이 신선농산물 수출 시 발생하는 손실 책임을 수출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상당부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정부가 수출과정에서 생겨나는 대금미회수, 클레임비용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수출 시 통관 지연이나 검역 문제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신선도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손실이 불가피해 지는데, 이는 물건의 화주가 되는 수출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물품이 적재되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인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이뤄지고 있어, 선박이나 항공이 출발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의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
- 이러한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 바로 단기수출보험이다. 그러나 실제 수출현장에서는 이 보험에

대한 활용 없이 생산자들에게 클레임 책임의 대부분이 떠넘겨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 보다 품질 문제와 추후 주문량 감소 등을 언급하며 농가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훨씬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 또 보험을 활용할 경우 일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클레임이 발생한 물량만큼 수출 물류비를 반환하게 돼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편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 따라서 수출현장에서 클레임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도 대금미회수를 포함, 단기수출보험을 통한 모든 보상처리가 지난해 16건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신선농산물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넘기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보험이라는 복잡한 방법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며 “생산자들도 일부 손실을 분담할 수 있으나 지금은 생산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지적했다.
- 이에 제도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는 적용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수출 농산물 생산자들의 주장이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우 어차피 생산자와 업체 모두 클레임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만큼 생산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수출보험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박수경 대리는 “보험의 경우 무역보험공사에서 개발해 놓은 상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aT에서 임의적으로 상품에 손댈 수는 없다”며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생산농가로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aT, 베트남 하노이지사 개소...농식품 수출 활성화 소비 촉진 역할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베트남을 포함, 동남아 지역에 대한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하노이지사를 개소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 지난달 29일 진행된 개소식에는 베트남의 황(Dr. Quang) 농업과 학기술원장 및 밍(Minh) 농촌개발부 국장, 고상구 베트남 한인회장, 배종하 FAO 대표, 박낙종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장 등이 참석해 하노이지사의 출발을 함께했다.
- 하노이 지사는 앞으로 베트남 신규 시장 개척, 정보 수집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농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 촉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 베트남 외에 필리핀과 라오스·캄보디아에 대한 수출 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이와 관련 김동관 aT 하노이지사장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케이푸드 페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베트남 및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지 SNS 홍보, aT 현지 홈페이지 개설 등 우리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수 aT 사장은 “베트남은 최근 3년 동안 우리 농식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3.4%인 성장률이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오늘 개소한 하노이지사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7.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토마토 요리 레시피 10종 개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전남토마토산학협력단(단장 이정현·전남대 교수)이 다양한 토마토 요리 레시피 10종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요리 레시피 기획은 토마토의 고유한 기능성과 맛을 유지하면서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다. 토마토를 많이 이용하자는 소비 촉진 차원에서 기획됐다.
- 토마토 요리 10종은 토마토영양밥, 토마토크로켓, 토마토젤리, 토마토약밥, 토마토비빔국수, 토마토전, 토마토경단, 토마토머핀, 토마토 양갱, 토마토장조림이다. 레시피 10종은 많은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 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량은 감소해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식품과 요리 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원은 토마토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가공·관광·유통 분야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융복합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 김덕현 기술원 농산업연구담당관실 박사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생산기술이 개발돼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면서 "앞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다양한 요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벼 키다리병, 해법 찾았다!

- 올해 못자리 병해충 합동예찰 결과 발생량 크게 감소 -

- 벼농사 중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은 수확량 감소와 함께 쌀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중 벼 키다리병은 지난 3년간 발생이 급증하면서 문제 병해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병해이기도 하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이 올해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 못자리에 대한 병해충 합동예찰을 실시한 결과, 표본으로 조사한 못자리 발병율이 지난해 46.7%보다 크게 줄어든 7.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문제병해로 꼽혔던 벼 키다리병의 경우, 지난해 46.3%에서 올해는 6.7%에 그쳐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활동과 기술 지원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 키다리병의 주요 병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흔한 것이 키가 크게 나타나는 도장형, 키가 작아 외견상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축형, 여리게 자라는 이상신장형 등 다양한 편이다. 이 병은 못자리에서부터 벼 생육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잎 색이 약간 옅은 것이 특징이다. 작년에는 특히 키다리병으로 많은 농가에서 모판을 폐기하거나 재 파종한 사례가 있었고, 이양 후 본답에서도 많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속출하였던 터라 금년 벼 키다리병 발병을 조사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농업기술원은 키다리병 발생이 줄어들게 된 주된 이유로, 파종 전 종자소독을 철저히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종자소독을 할 때 소독 약제의 교호사용(같은 성분 약제의 연속사용

금지)과 온탕소독에 의한 소독효과가 금년 발병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 요령을 농업인교육과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온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

- 도농업기술원 하준봉 지도사는 “키다리병은 첫째 건전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키다리병이 발생한 포장에서는 종자로 활용을 하지 말고 정부 보급종자를 활용해야 하며, 두 번째로 온탕소독기 등을 활용한 철저한 종자소독을 실시, 그리고 세 번째로 밀파를 피하고 적정량을 파종해야 키다리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벼 병해충 방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미니채소 육성 연구 추진

- 채소산업의 패러다임이 핵가족화와 더불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맛, 간편성, 기능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러한 소비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형형색색의 미니채소를 연구개발 보급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 미니채소는 양증맞은 크기와 다양한 색상으로 시각적 구매 효과가 우수하여 특이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고, 특히 야외에서 활동할 때 휴대가 간편하고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으며 손질과 보관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또한, 최근에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 로컬푸드는 대중적 시장이 덜 성숙되어 있는 소규모 작목들에 대해서도 농가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제시하면서 소농과 고령농 뿐만 아니라 귀농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품목 소량 생산과 유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소비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미니채소와 같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시스템의 틈새품목으로 접근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 반응까지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도농업기술원 엄미정 연구사는 "양배추, 오이, 가지, 당근, 무 등을 대상으로 미니채소에 적합한 품종을 우선 선발하고, 완주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금후 3년간 적정 작형조합과 품질, 수량성 향상 기술연구를 농가 실증재배를 통하여 조기에 정착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북농업기술원

■ 시설하우스 머위재배 고온기 대비 철저

- 도 농업기술원, 머위 잎 수확 시 차광막 수막시설 이용 당부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머위 잎 수확기를 맞아 연일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시설재배 농가에 차광막과 수막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머위는 최근 쌈채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작물로, 전국 유통량의 70%가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 머위는 다습한 토양을 좋아하고 추위에는 강하지만 강한 햇빛과 더위에 약해 고온보다는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며, 재배적지는 항상 물기가 있으나 배수가 잘 되는 곳이 좋다.

- 머위의 생육적온은 10~23도 내외로 온도가 높아지면 점차적으로 생장이 저하되고 심지어 생육이 정지되므로, 하우스 재배 시에는 차광막 30~50%와 수막시설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진딧물, 아메리카잎굴파리 등 병충해 방제도 해야 된다.
- 도 농업기술원 안정호 연구사는 “앞으로 시설하우스 머위 재배 시 여름철 고온기 재배기술을 개발해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생산성이 높은 신품종을 육성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충남농업기술원

■ 때 이른 무더위, 가축 관리 유의해야

- 고온 스트레스 방지, 환기와 신선한 물 공급에 신경 써야 -
-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축산 농가에 철저한 가축 관리를 당부했다.
- 도 농기원은 11일 최근 폭염 강도와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발생 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고온기 가축관리 요령을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가축은 27℃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혈류, 호흡수 증가 등으로 열 발산을 높이려는 생리기능이 촉진돼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는 가축의 사료섭취량 감소, 산유량 감소, 증체율 감소 및 번식 지연 등 생산성 저하를 유발한다. 심각한 경우 가축 폐사 등으로 이어져 양축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 도 농기원은 고온기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 시원하고 깨끗하며 위생적인 축사환경 조성 ▲ 환(선)풍기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배합사료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아침, 저녁 시원할 때 급여 ▲신선한 물을 항상 공급 ▲광물질과 비타민 보충사료 급여로 영양소 보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또한 축사 지붕의 복사열 차단을 위해 단열 처리를 하고 물을 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축사 주변에 활엽수를 심는 것도 장기적인 대비책으로 바람직하다.
- 도 농기원 이수영 기술보급과장은 “여름 고온스트레스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극심한 경우 폐사할 수도 있는 만큼 가축 관리에 더욱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다.”며 “올여름은 전력량 부족이 우려되므로 자가발전기 등을 설치하고 점검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정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8. 정책동향

◆ 이 지사, “축산업, 사료비 절감·악취 해결 노력을”

- 10일 지역 축협장 간담회 갖고 축산업 발전 방향 논의 -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1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도내 17개 지역 축협장과, 시군 축산업무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사료비 절감 및 악취문제 해결노력을 당부했다.
- 이날 간담회에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축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축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조합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병원성 AI 근절을 위해 축산인 모두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자질이 우수한 한우 품종 개량, 전남 동부권의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축산물 가공 유통시설 확충, 구제역·AI 방역 강화 등 수입 시장 개방에 대응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오늘 논의한 다양한 의견 가운데 당장 추진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며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35%를 차지하는 농업의 주요 소득원인 만큼 축산업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축산인과 축협·행정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지사는 또 “축산업은 사료가격, 축사악취와의 전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구제역, 여름철에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 전남도, 17일까지 축산농가도축장·사료공장 예방 접종 등 일제점검 -
- 전라남도는 구제역 재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의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및 소독 실시 등 현장 차단방역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는 구제역 방역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전남의 경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어 축산 관계자들의 긴장감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에서 여름철 돼지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한 이유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22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현장 방역실태 점검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소독 여부, 농장방문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도축장과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축산차량과 시설 소독실태 등을 집중 점검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와 소독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축산 관련 지원사업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지난 5월 22일자로 전국 구제역 발생 농장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으나 종식된 상황은 아니므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육 가축에 대해 100% 예방접종하고 축사 소독과 출입통제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에서도 농가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검사를 강화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라남도

◆ 벼 농작물재해보험 26일까지 가입하세요

- 전남도, 본격적인 모내기 철 시기 겹쳐 가입 기간 3주 연장 -
- 전라남도는 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기한을 오는 2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 이는 본격적인 모내기에 접어드는 바쁜 시기와 겹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벼 농가들을 위한 것이다.
-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과 집중호우, 우박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시 병충해(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로 입은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와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 올해부터는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돼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위삼섭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벼 재배농가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현재 판매 중인 벼 농작물재해보험 이외에도 옥수수는 6월 12일, 콩은 7월 17일, 시설작물은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출처 : 전라남도

◆ "지방농정 민간주체 역량 키워 교섭력 제고를"

- 농경연,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연구 -
- 정부는 지역맞춤 정책 설계·실행위해 지원을 -
-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방농정의 거버넌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을 키워 민과 관이 대등하게 견제가 가능하도록 교섭력을 키워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는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제기한 것으로 농업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이 중요하고, 지방 농정이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 배경이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사례 분석을 위해 전북 장수군·완주군, 충남 홍성군 사례와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해 분석했다.
- 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먼저 지방농정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에서 민간 주체의 농정

참여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농업인들의 참여가 정책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서 보장되는 보다 투명한 자료 공개와 적극적인 거버넌스가 추진돼야 한다.

- 이와 함께 모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성을 갖춘 농업인 조직에 의해 평소에 농정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들이 취약계층(여성농, 영세농, 고령농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농업인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모은 여론을 농정 의사결정과 실행·평가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 마상진 연구위원은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측성이 강한 지방 농정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간여보다 지자체에서 민간인의 교섭력을 높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설계·실행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지방농정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상진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지방농정의 민간주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역량제고로 교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정치참여 의식 및 참여경험을 제고하고, 농업인단체의 거버넌스 역량제고, 농업관련 주체 간 협력강화 및 다른 분야 거버넌스 활동과의 연대 방안을 제시했다.
- 다음은 지자체는 지방자치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강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정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 및 법적기반 마련과 공무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전담 공무원 또는 조직운영, 지방 농정 관련 심의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 농정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기보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논의하고 만들어가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농어업회의소 홍보강화와 시범사례를 확대하고 농어업회의소 사무국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9. 해외 농업정보

◆ 아르헨티나의 대두수확 가속화로 세계대두가격 하방압력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아르헨티나 대두수확이 12%포인트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대두가격이 근 5년래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한다. 세계 최대 동물사료 대두박 수출국인 아르헨티나는 이번시즌 59백만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3/14년 사상최대 수확물량인 53.4백만 톤을 능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두에 대한 수요는 아시아로부터 주도되었는데 이는 중산층의 소비패턴이 쌀에서 돼지, 소 및 가금류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농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대두의 72%에 대한 수확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시점 대비 64%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주 내내 거의 이상적인 기후조건이었으며, 향후 일주일간도 중부 및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은 더 따뜻하나 대체로 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의 대두과종은 지난 20년간 여러 재배지역의 밀과 옥수수과종을 대신할 정도로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윤작부족으로 비옥한 팜파스 농장지역의 토양이 장기적인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밀에 수출세를 23%, 옥수수에 20% 부과한 반면 대두에는 35%나 부과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이나 옥수수 선적물량을 상회하는 ‘대두 수출물량 할당시스템’으로 농가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 해 동안 수확물량 및 국내소비량에 따라 허용 수출물량을 올리거나 내렸다. 이로 인해 재배 농가들은 작물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구매자들

사이의 경쟁을 감소시킴에 따라 수익이 감소한다고 불평했다. 한편 이러한 대두수확 증가는 건조한 지역에서도 대두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 기술에도 영향을 받았다. 농업 컨설팅회사 AgriPAC 소속 Pablo Adreani는 “현재의 상황은 이상적인 기후뿐만 아니라, 몇 년전만 해도 너무 건조해서 대두가 재배될 수 없던 지역의 단수를 증가시킨 유전자 기술의 결과이다” 라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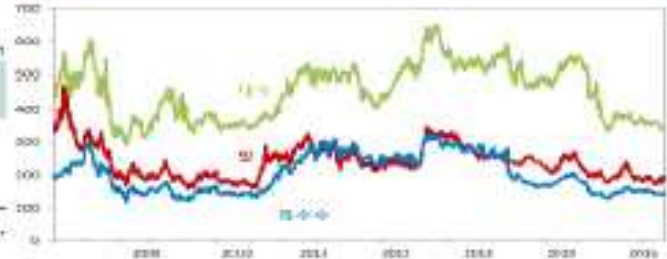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6. 11.(시카고 선물거래소)

밀 가격, 겨울 밀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2주째 최대 낙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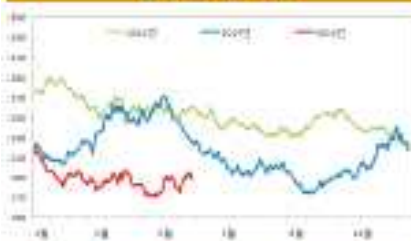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6.10)	전일대비	전월평균 (15.5)	2014 평균
밀	188.64	▼3.5%	180	216
옥수수	140.62	▼2.1%	141	164
대두	348.84	▼0.2%	352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S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경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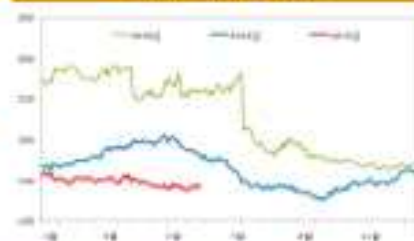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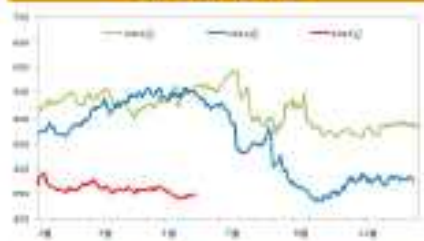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국 USDA의 겨울 밀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인해 2주째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미국농무부(USDA)의 월간 곡물수급 보고서에 따르면 겨울 밀 생산량은 15.05억 부셸로 지난해보다 33백만 부셸이 증가함. 단위면적(에이커)당 생산량은 43.5부셸/에이커에서 44.5부셸/에이커로 소폭 조정됨. 2015/16년 기말 재고량은 81.4백만 부셸로 지난해보다 21백만 부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옥수수 공급량으로 인해 지난 3월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미국농무부(USDA)의 월간 곡물수급 보고서에 따르면 2015/16년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예년용 생산을 옥수수 수요 감소로 지난해보다 25백만 부셸 증가한 17.71억 부셸임. 브라질의 2014/15년 옥수수 생산량은 곡물 면적 증가의 영향으로 3백만 톤 증가한 81백만 톤으로 전망되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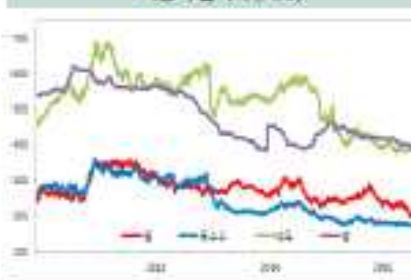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으며, 미국농무부(USDA)의 월간 곡물수급 보고서에 따르면 2015/16년 대두 기말 재고량은 국내 대두 가공 및 대두박 수요 증가로 지난해보다 25백만 부셸이 감소한 475백만 부셸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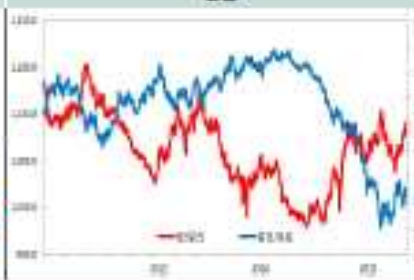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옥수수를 제외하고 소폭 상승했음.
- 국제유가는 미 원유 재고 감소, 비 OPEC 공급 감소 전망,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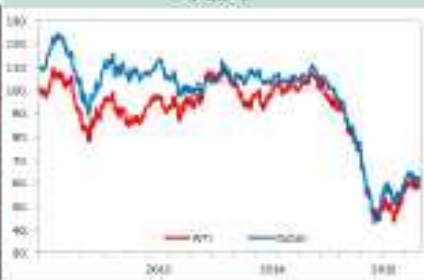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21	▲0.7%	환율	원/달러		1,119	▼0.2%
	옥수수		172	▼0.1%		달러/유로		1.13	-
	대두		383	▲0.7%	국제유가	WTI		81.43	▲2.1%
	밀		373	-		Dubai		82.66	▲5.1%

주 1) 밀(US SSW Gulf), 옥수수(US SJC Gulf), 대두(US Gulf), 환(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6.9(수출가격), '15.6.10(환율), '15.6.1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유가:기아차,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고소득 농업사례

■ "농작물도 생명체라는 마음으로 농사 지어야 성공"

- 귀농자는 욕심 버려야...방울토마토로 올해 5천만원 예상 -
- 지난 주말 전남 화순군 한천면에 위치한 '토리농장'(대표 염상윤·35)을 찾았다.
- 염 대표는 하우스 안에서 토마토 포장작업을 하다 반갑게 맞이했다.
- 취재에 앞서 염 대표는 혼자 토마토 포장작업을 하다 보니 하우스 한 칸에 놔둔 박스 안에 딱새가 알을 낳았다고 자랑을 했다.
- 염 대표는 "딱새가 친인간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박스 안에 알을 낳았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가 하는 농사가 잘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염 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귀농했지만 귀농 초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고집과 기술력 부족 등으로 친환경으로 재배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시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했으나, 차츰 기술이 늘어나고 요령이 생기면서 하우스 내에 이랑을 만들어 토마토를 정식하고 수확하며 수확이 끝날 즈음에는 옆에 새 모종을 정식하는 방법으로 3차까지 정식해 연중 출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 또 염 대표가 화순군 지역 4H 회원들과 유대 관계를 늘리면서 농사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고 농사 규모도 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염 대표는 시설하우스를 늘리고 있는 관계로 2천644㎡(800평)서 올해 조수익 5천만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 염 대표가 키운 방울토마토는 현재 각화동원예농협(80%)과 직거래(20%)를 통해 1상자에 1만7천원~1만8천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 염 대표는 양액재배 등의 적절한 사용과 전문교육 수료후 작물 생리에 맞는 병해충 관리로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 하지만 처음부터 염 대표가 농사에 소질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 "귀농교육을 받으면서 어디서 무슨 작물을 키우느냐가 가장 큰 문제지 나 같은 경우는 역귀농이다 보니까 어디서 씨를 뿌려야 할지 고민은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닭아놓은 땅에 무얼 심어야 할지만 생각하면 됐다"고 말했다.
- 염 대표는 최근 핵가족과 1인 가족시대가 찾아옴에 따라 소포장 제품과 한번에 먹을 수 있는 번거롭지 않은 작물이 유망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중요한 건 책을 통해 습득한 이론과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경험자의 비결을 나만의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며 “책만 갖고 백날 공부해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의 비법을 고민도 안 하고 갖다 쓰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 염 대표는 농부가 흘린 땀방울만큼 땅은 정직하게 보답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 “농사는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했어도 지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 “나 같은 경우는 부모가 농사기반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귀농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싶다”며 “시골이나 도시나 일하는 건 다 똑같다”며 “업

종이 다를 뿐이지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도태되기 마련이니, 시골이나 도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 외엔 부농의 성공비결은 없다"고 강조했다.

- 염 대표는 젊은 귀농인들에게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
- "처음 귀농 당시 돈을 벌려고 농사에 욕심을 부리다보니 작물이 크질 않고 쉽게 시들어 죽어버리는 경우를 봤다"고 말했다.
- 그는 "귀농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라며 작물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성공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전남 해남군, 年소득 1억 富農 5년새 6배 경증 `대한민국 농업1번지

- 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논과 밭 3만5000여 ha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 '농업 1번지'로 통한다. 특히 318km에 달하는 해안선은 풍부한 바다 자원을 활용한 양식산업 활성화와 연근해어업 등 수산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자연조건 덕분에 해남은 지난 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농업경쟁력 종합지표에서 전국 6위, 전남 1위를 기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해남군 농업총생산액은 7129억원으로 전국 4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5년 6333억원에서 5년 사이에 13%가 늘어난 수치다. 2009년 100여 명이던 연소득 1억원 이상 부농 숫자 역시 2014년 말 기준 617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해남군은 쌀 2200억원, 배추 1200억원, 고구마 420억원, 물김 및 가공 김 2500억원, 전복 600억원과 함께 특화작목, 축산 등 주종목을 추계하면 연간 9000억원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분야별 성장세를 계속해 나간다면 향후 3년 내에 농축산어업 소득 1조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처럼 해남군은 농어업군 특징을 살린 친환경 농어업정책과 함께 스포츠마케팅, 고용복지정책 등 지역에 특화된 창조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 해남군은 특히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해 주력한 결과 전체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이 3715ha에 이른다. 이를 기반으로 해남 농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브랜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 수도권 학교 227곳에 연간 친환경 쌀 605t을 급식용으로 납품했으며, 황산면 어촌계에서 생산한 지주식 김은 전국 1호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기도 했다.
- 해남군은 지금까지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쌀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 인증 품목도 다양화해 판로를 넓히고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유기질 비료 지원과 친환경 단지 조성 지원 등 연간 180억원에 이르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나 2012년 시작된 새끼 우렁이 공급,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건립 등이 친환경 농업 내실화를 위한 대표적 움직임이다.

- 이와 같이 해남군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 전체 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12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해남군민 중 43%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 활성화가 해남 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남군은 또 마늘, 배추 위주인 관행적 농업환경을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고자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배추를 김치나 절임배추로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남군은 2012년 황산면에 배추 가공공장을 신축했고 연간 100동이 넘는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13년 5월 가동에 들어간 고구마 가공공장은 고구마 말랭이로만 월 1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남군은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에도 앞장서 현재 쌀과 고구마, 배추에 이어 무화과, 미맥, 밤호박, 버섯 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 박철환 해남군수는 친환경 녹색 축산을 위해 2011년 2월 축산진흥사업소를 신설했다. 축산진흥사업소는 가축사육 환경 개선과 조사료 생산 기반 80% 달성, 가축분뇨자원화 등 해남군이 당면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는 돌파구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 해남군은 어업인들 소득 창출을 위해 전복과 해삼 등 고소득 양식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해남군은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7년 해남농업블루오션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했다.

- 해남군은 직영 2년 만에 연간 매출액 15억원을 올리며 직영 전에 비해 2배 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유통상품 개발로 해남미소 쇼핑몰 입점 업체 수가 145개로 3배가량 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직거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출처 : MK뉴스

11.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 판매기간 : (당초) 4. 20. ~ 6. 5. → (변경) 4. 20. ~ 6. 26.
 - * 옥수수 5. 4~6.12, 콩 6.1~7.17, 시설작물 2.23~12.31 등
- 보험상품 : 태풍(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손해, 특약 가입시 병충해(도열병 등 4종) 손해까지 보장
- 가입방법 :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가입
 - 보험료는 올해부터 카드 분할 납부 가능
 -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정부 50%, 지방비 30%, 자담 20%)
 - * 1ha 당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단가 : 473천원(보조 378, 자담 95)

◆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 기 간 : 6. 15. ~ 6. 26.(2주간)
- 금회신청 : 150억원(보조 1, 이차보전 149)
- 지원대상 : 2014.12.31.일 이전 축산업등록·허가된 가축 사육농가
- 지원기준
 - 보조지원(준업농~전업농 규모)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 이차보전(기업농규모) : 융자 80%, 자담 20%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 등 신축 및 개보수

주간

전남농업정보 38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